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9월 17일(금)
...(음력 8월 11일)...
Пятница
17 сентября 2021г.
№ 36 (1195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리랑 소공원을 개장했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9월 19일은 국가두마 선거일

9월 19일(일)은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투표장으로 직접 방문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거일을 연장하여 현장 투표는 17일(금)-19일(일)까지 이뤄진다.

제167호 사할린 단일선거구에서 올해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는 8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알렉산드르 아니스트라토브(정의로운 러시아-애국-진리를 위하여), 로만 웨제네예브(새로운 국민당), 구르킨 안톤(야블로코), 게오르기 카를로브(러시아 통합당), 알렉산드르 콘코브(조국당), 올렉 코레츠키(러시아 공산주의당), 알렉세이 코르니엔코(러시아 연방 공산당), 드미트리 플레예르(러시아 자유민주당)이다.

지난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두마 선거에 투표소 감시 문제에 따른 여러 조치들을 밝혔다. 국가두마 선거와 관련해 사회감시센터장이며 사할린주 사회원 의장인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에 따르면 희망자는 누구나 일년 내내 감시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이 교육을 600여 명이 통과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박물관에서 작동되는 사회감시센터는 9월 17일 아침 8시부터 9월 19일 밤 12시까지 가동된다.

투표장 감시카메라(CCTV) 가동은 〈로스텔레콤〉 회사에서 관리하며 선거가 이뤄지는 투표소와 투척함에 각각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또한 선거일에는 각별히 경찰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비를 설 예정이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 15명 〈2021- 사할린 주의 자람〉 칭호를 위한 경쟁

〈2021- 사할린주의 자람〉경연 우승자에게는 '사할린의 등대' 연례 주지사상을 수여한다. 이미 첫 단계는 주민 투표로 완료되었다. 경연 조직위원회는 5개 부문 각각에서 경쟁자 중 상위 3명씩을 선정하게 되며 최우수 후보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주민 투표에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결정하게 된다.

〈사할린주의 자람〉경연에는 청년운동 지도자, 다자녀 부모, 은퇴 후 활동가, 사회적 기관의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후보자들을 추천한 가운데 3주 동안 사할린 지역 주민들이 참가자들을 적극 지지해서 첫날에만 약 3천 명이 투표하여 〈사할린주의 자람〉이라는 칭호에 130명의 후보가 올랐다.

가장 인기 있는 부문은 〈어린 주민〉으로 이들은 미성년의 청소년들로서 주 전체와 지역, 시, 학교 생활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청소년들은 스포츠와 창작 부문의 우승자들이며,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학교 올림피아드와

기능올림픽 선수권 대회 우승자들이다. 둘째 인기 부문은 〈활기찬 장수생활〉이다. 후보들은 연령 50세 이상으로 사회활동, 스포츠, 창작활동에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는 사할린 주민들이다.

참가자 수에 따라 3위에 오른 〈특출한 부모〉부문의 후보자들은 다자녀를 두거나 입양을 통해 가정의 가치를 공고히 할 줄 아는, 본보기가 되는 부모들이다.

〈국민적 신분〉부문은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 용기와 대담함과 결단력을 보여준 주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유명한 사할린 주민〉부문의 후보자들은 사할린 지역 출신과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부문으로 이들은 성공과 명성을 얻고, 자신의 성과로 사할린주를 빛낸 사람들이다.

'사할린 등대'상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제정한 상으로 올해 대규모 대회에 31명의 후보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자는 사할린 지역 주민들 중에서만 아니라 사할린 기업들과 비영리단체들 중에서도 선정된다. 우승자 시상식은 11월 4일 국민 단결의 날에 이뤄진다.

단신

코르사코브, 의료용 마스크 생산 공장 준공

지난 10일(금)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보건용, 의료용 마스크, 신발 커버, 생활 및 의료 폐기물 처리를 위한 봉투를 생산하는 '수은 중합체' 과학적 생산품 공장의 완공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코르사코브 시장을 비롯해 공장 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와 같은 공장이 극동지역에는 아직 없다. 공장 건설은 2년에 걸쳐 이뤄졌고 생산을 위한 최고급 기술 장비는 대만에서 수입했다.

의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획 생산량은 마스크는 최대 500만 개, 신발 커버는 최대 1000만 쌍, 식품 및 의료 폐기물 봉투는 최대 750만 개이다. 생산에는 폴리프로필렌 과립과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

사할린 아동들에게 독감 예방접종 시작

사할린주에 아동들의 면역을 위해 독감 백신 2만9천500회분이 사할린에 들어왔다.

이는 러시아 보건부의 주도로 사할린주에 공급됐다.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 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6개월 - 3세까지 2회 접종, 3세 이상은 1회 접종한다. 이와 동시에 연령에 관계없이 폐렴균, 뇌수막염, 백일해, 로타 바이러스 감염, 수두에 대한 예방접종도 한다. 15일(수) 기준 304명의 아동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첫 당첨자에게 상금 10만 루블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러시아 국민 중 첫 500명이 당첨되었다. 연방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상금에 대한 정보는 기획 사이트 '건강을 위한 보너스'와 '국가 서비스' 사이트의 개인 계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추첨위원회가 1차로 500명의 당첨을 확인했고, 2차 추첨은 10월 14일에 진행된다.

사할린주 도서관 '우수 향토연구 출판물' 경연 우승자에게 시상

'우수 향토연구 출판물' 경연 우승자 시상식이 11일(토)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렸다. 경연은 2021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도서전시 및 박람회에는 사할린주를 넘어 연해주,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 마가단, 라잔주 등지에서 49명의 참가자들이 보내온 도서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자 출판 및 인쇄 출판물 100점 이상으로 교육 및 학술 단체, 도서관, 고문서 보관소 및 박물관, 출판소, 인쇄 디자인 및 공공 단체, 작가 및 편찬자들의 자료들이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유아 교육, '고아 없는 사할린' 활동에 몰입하는 하 나탈리아

40대 초반의 하 나탈리아는 <행복한 아이들>어린이 교육센터 원장이다. 이 센터는 2세-4세의 유아들을 위한 규모가 아주 작은 사립 미니유치원이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센터에 와서 여러 활동을 통해 교육도 받으며 점심을 먹은 후에는 낮잠도 잔다. 센터에는 유아는 15명 정도의 평일(매주 5번)반이다.

나탈리아는 이 센터를 2018년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육아를 하는 엄마들을 생 각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센터에 몇 시간 아이를 맡기는 동안 그런 엄마들이 될 수 있는 틈을 드리는 기회였죠. 아이들은 여기에서 놀고 여러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3번 찾아오던 아이들이 차츰 매일 오게 되었고, 엄마들은 잠깐 맡기는 것보다 유치원 그 룹처럼 활동하길 원했습니다."라고 나탈리아가 현재 교육센터 활동을 설명했다.

현재 센터에는 장기간 유치원 활동 경험이 풍부한 교원이 있고 아이들의 식사, 교원 보조를 담당자도 있다. 나탈리아 씨도 매일 출근하면서 교원 활동도 참여하고 여러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과 놀이와 휴식을 위한 시설, 기구, 문구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무엇보다 이 센터에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좋다는 평가가 있다. 센터가 시 공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유아들은 공원에서 자주 야외 활동도 한다.

4살이 되면 아이들은 이 센터를 졸업하는데 하 원장은 규모도 작다 보니 새 유아원생 모집은 걱정이 없다고 했다. 입소문으로 항상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장이 사할린동포라서 그런지 아이들 대다수가 동포다.

나탈리아가 유아원 원장이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인 나탈리아는 2003년에 사할린국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전공은 '금융과 신용'이었다. 사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가족이 함께 하는 개인사업에 참여했다.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대표로서도 활동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함께 하는 사업이었다. 식품과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가게였는데 매장이 좋은



위치에 있고 서비스도 친절하여 인기가 많았고, 수입도 꽤 괜찮았다. 그런데 뜻밖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병환으로 잃게 된 이후 나탈리아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한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장 수익의 큰 몫은 알코올 제품 판매가 차지합니다. 저는 술을 판매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 가족들에게 이걸 받아들이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라고 나탈리아가 말했다.

15년간 개인업을 하던 나탈리아는 취직 경험이 없었다. 인터넷 광고를 검토하고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냈다. 면접을 잘 보고 들어가는 자리는 <베들레헴>회사 의료관광 매니저였다. 여기에서 2년간 일했는데 의료관광에 관련 업무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고객을 잘 상담하고, 필요한 코스도 추천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심각한 병을 진단받은 중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에너지가 조금씩 사라졌다. 마침 가족들이 매장을 정리하고 나탈리아는 이곳에서 교육센터를 열기로 했다. 아이 교육에 관심

이 많은 그는 주 교육부 산하 사할린주교육진흥소에서 언어장애교육자 과정을 수료해 자격증을 따냈다. 그리고 부모들을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행복한 아이들> 계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올해 결혼 20주년을 맞이하는 그에게는 가족이 아주 소중하다. 항상 뒷바라지 하는 남편, 친구처럼 지내는 샤프테데르부르크의 의대 학생인 아들, 엄마를 따라다니기를 좋아하는 9살의 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니 또한 딸로부터 부모들과 함께 살겠다는 생각에 큰 집을 지었는데 아버지는 수술 전에 딱 하룻밤을 보냈고, 어머니는 지금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하 나뿐인 여동생과도 사이가 아주 좋다.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함께 야외도 즐기고, 산책도 많이 한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로만 해도 할 얘기는 많다.

가족과 관계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성장한 그녀에게는 가족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아직 <베들레헴>회사에서 일하는 시기에, 그녀는 아이들과 애정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트로이츠크에 고아원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공식 모임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다수 20-30대, 그중 한인동포가 꽤 많다)이 시간 나는 대로 날을 정하고 고아원을 찾아가 활동을 한다. 가서 축구를 하든가, 요리를 함께 하든가, 예를 들어 파이를 만들려고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함께 파이를 만들어 먹고, 얘기하며 웃는 시간을 갖는다. 트로이츠크에 고아원에는 주로 입양되었다가 양부모의 거절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온 사춘기 아이들이 살고 있다. 그런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덜어주고,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아원에서는 항상 기다린다.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아원생들과 만날 수가 없었다. 대신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과 만남은 계속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할린 대학 재학 중인 한 청년(고아원 출신)과 이미 취직을 한 청년들과 함께 고르니 워즈두흐 스키장에 올라 즐거운 시간을 여러 번 가졌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러나 이 시간이 고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았다고 한다.

나탈리아가 그런 활동을 즐기는 것을 SNS 계정을 통해 알게 된 한 활동가가 재작년에 나탈리아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김 세르게이는 <고아 없는 프리모리예(연해주)>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그가 사할린에서도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탈리아에게 제의했다. 나탈리아가 이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휴가차 사흐초르스크 친구 집에 있었다. 이런 연락을 받고 바로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이 동포 친구가 함께 해보자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타나 이렇게 모여든 15-20명이 한 뜻을 모아 작년에 <고아 없는 사할린> 단체를 설립했다.

세 설립자 중 한 설립자로서 나탈리아가 단체 실무 활동을 맡고 있다. 이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이들은 집에>사진 전시였다. 단체는 입양가족을 돕는 단체로서 물론 입양아들의 새 가족을 소개하는 사진을 전시하기로 했다. 그때 단체 임원들이 자선활동으로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 전문가 7명을 섭외하여 이들은 소개된 7 가족을 촬영했다. 그런 가족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만 아니라 사할린의 여러 곳에 살고 있었다. 첫 전시는 작년 11월 초에 열었고, 메가베료즈카 쇼핑몰에서 한 달, 시티몰에서 2달간 전시를 해왔다.

나탈리아 회장에 따르면 사진 전시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고 입양가족 클럽도 만들어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지원보다는 심리적, 실제적 지원을 하고 입양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입양아들이 실제로 문제가 많은 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과 경험, 전문가들의 조언 등으로 이 모든 것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함으로써 고아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꿈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

하 나탈리아의 꿈과 활동은 크지 않아도 원대하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는 <고아 없는 사할린>단체의 바람과 노력과 땀이 좀더 밝은 세상과 미래를 열 수 있길 기대하고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아니와 콜쫂(지역 코스)>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개최

<2021 아니와 콜쫂(지역 코스)> 크로스컨트리 달리기가 사할린주에서 열렸다. 올해엔 자신의 지구력을 시험하려는 선수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네웰스크, 아니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코르사코프, 포르나이스크, 흠스크, 오하, 트로이츠크에, 달네예, 우글레자보드스크, 타라나이, 다츠노예를 비롯해 모스크바, 바르나울, 아스타나, 아르한겔스크, 첼랴빈스크, 로스토브나 도누, 하바롭스크, 브라질, 미국 등지에서 188여 명 참가했다.

운동과 건강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10km, 21.1km, 42.2km의 3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경주해야 했다. 우승자와 수상자 결정은 10km 코스 부문에서만 이뤄졌고 중거리 코스 참가자들은 18세-35세, 36세-49세, 50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대별로 경주를 했다. 장거리 코스는 올해 처음으로 18세-39세, 40세 이상의 두 개 연령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달리기 코스에는 4개의 쉼터를 마련해 경주자들이 물이나, 스포츠 음료, 과일 음료, 바나나로 기운을 돌출 수 있도록 했고 모든 경주가 끝난 후에는 수박을 비롯해 따뜻한 차와 도너츠를 제공하고 완주 메달을 수여했다.

크로스 "아нивское кольцо" состоя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кросс "Анивское кольцо-2021"

прошёл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вою выносливость в этом году решили проверить 188 спортсмен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евельск, Аниву,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Аниву, Корсаков, Поронайск, Холмск, Оху, Троицкое, Ново-Троицкое, Дальнее, Угле-заводск, Таранай, Дачное, а также Москву, Барнаул, Астану, Архангельск, Челябинск, Ростов-на-Дону, Хабаровск, Бразилию и США.

Любителям спорта 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одну из трёх дистанций на выбор: 10, 21,1 или 42,2 км.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ёров на 10-километровой трассе определяли в абсолютной категории. На средней дистанции бегун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категориях 18-35, 36-49, 50-60 лет, а также 61 год и старше. Самый длинный маршрут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разбили на две категории: 18-39 лет и 40 и старше.

На трассе были расположены четыре пункта, где участники могли подкрепиться водой, изотоником, морсом и перекусить бананам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забега всех спортсменов ожидали медали финишёра, горячий чай с пирожками, а также арбузы.

사할린 및 쿠릴 주민, 전 러시아 '경제 디딤터'에 참가

경제 디딤터(단답시험)가 10월 12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5시부터 22시까지 주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 시험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험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제 디딤터 주최로는 러시아 자유경제공동체 부속 국제 경제인연맹, 러시아 연방 정부 행정자치단체, 러시아 연방 정

부 산하 금융대학, 러시아 연방 우수 대학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연구소의 참여 속에 이뤄진다.

경제 디딤터의 목적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연령별, 전문가 그룹의 경제적 교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지적 잠재력을 개발시키며, 러시아 연방 각 행정자치단체들의 주민들의 경제적 교양과 경제 활동을 평가하려는 데 있다.

러시아 자유경제공동체는 2017년부터 <전 러시아 경제 디딤터(단답 시험)> 전국 교육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20년 들어서는 러시아 85개 행정자치지역과 6개국에서 처음 온라인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18만3천215명이 시험에 참가했다.

경제 디딤터 결과는 시험 후 즉시 참가자에게 알려주며 해당 지식 수준을 알려주는 참가 증서를 등록된 개인 계정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경제 디딤터에서 참가자 중 90점 이상을 받아야 우승하게 된다. 우승자의 상장도 온라인상 개인 계정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경제 디딤터 우승자들은 경제과학 축제 마지막날 참가와 러시아 자유경제공동체의 행사 및 다른 기획들의 참가에 초대된다.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диктанте

Он состоится 12 октября с 5:00 до 22:00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в виде тест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кции. Каждый с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и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리랑'소공원 개장

지난 1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리랑 소공원을 개장했다. 이날 날씨도 맑고 방문객들도 들뜬 가운데 소공원 완공식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신나는 풍물놀이로 시작되었다.

아리랑 공원은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작업이었다. 그러다 작년부터 이 꿈을 실현하도록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힘써주었다. 그런 가운데 건설 설계안을 작성하고, 2020년 10월 초에 소공원 착공식으로 나무심기를 했다.

적극적인 공사 작업은 올해 6월초부터 시작했다. 3개월 동안의 조성 결과 아리랑 소공원 중심에 정자(탁 트인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 좋은 위치에 짓는 한국식 전통의 건축물)가 들어섰고 여러 보행자 길을 꾸몄으며 다양한 식물들로 장식했다.

아리랑 소공원 완공식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국가두마 게오르기 카를로브 의원,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해 주 및 시 행정부·두마 관계자, 한인단체 임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참석했다. 주요 인사들은 빨간 리본 컷팅으로 공원 개장을 알렸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한민족 문화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우리 도시의 아리랑 소공원 조성을 위한 협의가 몇 년간 진행되고 있었다."며 "유즈노사할린스크 13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공원을 개장하는 것은 상징적이다. 아리랑 소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좋은 쉼터가 될 것이며 도시의 한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 공원은 '아리랑'이란 이름을 가졌다. 잘 아시다시피 아리랑은 한민족의 상징적 노래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 널리 애창되는 대표적인 이 노래에는 한민족의 한과 극복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이 기획을 시행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 정부와 시장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찾아옴으로써 앞으로 이 소공원이 민족 간 유대 강화에 중요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은 "사할린에는 있는 2만6천여 한인동포와 한국과 러시아 전역에 퍼져있는 사할린 출신 한인 동포를 포함하면 약4만여 명의 사할린 출신 한인 동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고향인 사할린을 매우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리랑 공원은 사할린 한인동포의 사할린 하면 떠오르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 정서적 구심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할린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찾아가 보고 싶고, 추억의 사진을 찍고 싶은 의미있는 장소가 되어 관광 포인트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관리국 이리나 게라시모와 국장은 "이 기획 실현에 1600만 루블리가 지급되었다."며 차차 공원에 새로운 벤치, 잔디, 자체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화단을 가꿀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민족적 건축 분위기를 살리며 조성된 아리랑 공원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매력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2년간 사할린에 1천여 명의 의료진 배치

사할린주에서는 보건 분야에 인력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의료기관에 933명의 의료진을 채용한 가운데 그중 의사가 420명이다. 전문 의료인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해결되고 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건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할린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 기반을 개선하고자 보건소와 산부인과 조산원, 외래환자 진료소를 건설하고 있다. 둘째 중요한 요소는 의료 인력 유치다. 우리는 필요한 전문의를 영입하여 그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건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이후 사할린과 쿠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올해는 산부인과 내 부인과, 신경과, 치과에 가장 많은 전문의들을 유치했다.

사할린주의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여건들은 러시아 내에서 가장 주목을 끌 만한 것 중 하나다.

인재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 후 주택 확보를 위한 일시 지원금(3백만 루블리까지)과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또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계약할 시 사회 지원정책을 받게 된다.

"올해는 사할린 지역의 의료 인력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한 예로 네웰스크 병원에는 8명의 의사들이 배치되었으며, 돌린스크와 코르사코브에는 11명의 전문의가 유치되었고, 오하와 포로나이스크, 티몹스쿠에 기타 중심 지역에 의료 인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체계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 보건부 장관이 덧붙여 말했다.

연말까지 사할린주 의료기관에는 125명의 의료진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 중 70명은 이미 사할린 지역으로 향하는 중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139주년 기념



지난 1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공원에서 도시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남녀노소들을 위한 따뜻한 무대와 활동교실 등은 때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운 기분을 안겨주었다.

(취재: 이예식 기자)

2021년 농산업 소수인구조사 1단계 완료

사할린주에서 2021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농산업 소수인구조사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41개 농산업 단체와 363개 농장산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조사자들을 통해 3만 258개의 개인 보조 사업 및 1천200개의 원예조합이 조사되었다. 소수인구조사 진행에는 76명의 조사자와 11명의 농작물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조사작업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 앱을 이용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2021년 사할린 지역 농산업 소수인구조사 실시에 적잖은 수고와 기여를 해주신 모든 인구조사 요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사할린 지부 통계청은 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 러시아 통계청 웹 정보수집 시스템을 통해 소수인구조사로 얻은 자료와 행정적인 자료, 컴퓨터 앱의 자료들은 농업경제의 구조에 대한 최대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이전보다 2배 빠르게 정보가 처리되며 인구조사 상황 결과는 11월에 밝혀지고, 최종 결과는 내년 말에 밝힐 계획이다.

조사 결과로 2021년 8월 1일 상황 기준 지방자치체와 전반적인 주내 가축의 마릿수와 재배 면적에 대한 전체 자료가 제공될 전망이다. 전문가, 학자, 사업가, 농업인은 소수인구조사 세부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사할린 통계국 보도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квер Ариран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сквера Ариран, которое ознаменов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м перерезанием красной ленточки.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Сергей Дмитриев,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вак Ки Донг и другие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Инициатором обустройства нов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ыступили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квер в восточном стиле расположился рядом со зд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Его украшают беседка, выполненная по всем канонам корей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В будущем здесь появятся скамейки, посажены цветущие кустарники и газоны.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поблагодарил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важного начинания.

— Переговоры о появлении в нашем городе сквера, подчеркивающего аутентичность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елись несколько лет.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его открытие проходит накануне 139-ле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явление новых уютных уголков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города становится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Уверен, что и сквер Ариран станет зоной отдыха для горожан и настоящим украшением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 сказа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выразила слова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мэру города за поддержку инициатив, отметила, что появление нов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еских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Этот красивый сквер, названный в честь самой изв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станет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туристов, будет служить новой эффектной фотозоной, — отметила Оксана Пак.

Также в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перед гост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вак Ки Донг. В знак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за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он вручил Сергею Надсადину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Музыкальным подарком для гостей церемонии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щиков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ото: Ли Е Сик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в Хабаровске

Краткий обзор выступлений российских участников про преступления Японии против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6–7 сентября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ошел больш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форум, основным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Фонд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Российск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сториков-архивистов. Форум был посвящен обсуждению истории Хабаровского процесса 1949 г., его важности в контексте ис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как ключевой точки в мемориализац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пециально к форуму архив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рассекретил и представил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массив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й подтверждает планы Японии развязать в 1945 г.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ую войну против стран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Есть в данных документах и свидетельства бесчеловечных опытов,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сь японскими преступниками на людях.

На форуме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остранных научных кругов —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з стран, которые были оккупированы Японией перед ил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тая, Индии, Белоруссии выступили с докладами, в которых описывали особенности восприятия своих народов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бращали внимание на тяжелые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мемориализации и музеефикации войны и геноцида. Они указывали на тот неоспоримый факт, что только полное знание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истории предотвратит их повторение.

На форуме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известные ученые 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ри этом часть из них затрагивала и такой важный вопрос, как преступления Японии против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олониальный период Кореи, несомненно, является тяжелым периодом истории для страны, а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пострада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литики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асто добиваютс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о сих пор.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известный ученый-кореевед, кандидат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им Ен Ун. Его выступ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политики геноцида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йцам и китайцам» затронуло важные вопросы преступлений японцев против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тех территорий,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оккупированы японской армией.

Бэлла Борисовна Пак,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заведующая лабораторией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Женщины для утешения" для императорской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оен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грубое наруш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в област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Ее доклад произвел неизглади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раскрывая и показывая преступления японцев и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янкам (в большинстве) и женщинам других наций, которых заставляли работать в качестве сексуальных рабынь для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Бэлла Борисовна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а позорную позицию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глашении этого вопроса —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Япония отказывалась признавать за собой вину, утверждая, что этим занимались частные фирмы, однако сдавалась только перед обнародованием неопровержимы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До сих пор в Японии этот вопрос замалчивается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На форуме выступи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к Сун Ок,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ступая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какие сложные моменты пережила диаспора в японский период — притесне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изнаку, подавл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дискриминация, насильствен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содержание в невыносимых условиях, убийства мирных корейских жителей.

На площадке «Музеефикация темы геноцида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ССР в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узеях России» выступила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заведующий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ым отдел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Ее доклад «Исторические источники по изучению уничтожения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японцами на завершающем этап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был посвящен важным событиям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убийств корейцев японцами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Юлия Ивановна констатировала, что нам известно многое об этом периоде, мы знаем, что убийства были. Однако научное изучение эт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невозможно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поскольку отсутствуют в общем доступе достоверные источники, по которым историю данных убийств можно изучать. Источ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собой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убийц, расследовавших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до сих пор засекречены и хранятся в архивах ФСБ. Сейчас, к сожалению,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ынуждены довольствоваться тольк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косвенными свидетельствами.

Юлия Ивановна в конце своего доклада выразила надежду, что поскольку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ен истечь 75-летний срок секретности озвученных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Ф позволит исследователям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документам, имеющим отношение к убийствам в Мидзухо, Камисиса и дру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деревня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запросная работа в архивы ФСБ России ранее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краеведческим музеем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Сейчас историк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т ответа на него. Доступ к данным архивным документам важен не только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но и для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и журналистов. Они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сказывали надежду на получ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изучить истинную картину убийств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достоверном фактическом материале.

В целом, форум прошел на высо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и научном уровне. Он несомненно сыграет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в активизации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сающихся событий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более пристальному вниманию российского и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 действиям и поступкам Япон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оккупированным странам и ее планам ведения агрессивной, в том числе нарушающ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войны. Возможно, это сыграет плодотворную роль и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сторическая трагедия которой ведет св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менно из этого периода.

(Подготовлен по материалам форума)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я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Ядер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обсудили возобновление диалога с Пхеньяном

14 сентября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Гю Док,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н Ким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и Тихого океана МИД Японии Такэхиро Фунакоси провели в Токио переговоры, в ходе которых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я диалог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ереговоры состояли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хеньян провёл испытания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нового типа и возобновил работу реактора в Ёнбён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Но Гю Док призвал Север вернуться к диалогу, напомнив о важности тес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ами – РК и Японией.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США не имеют враждебных намерени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Пхеньян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еагирует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стретиться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обсудили также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ддержку и другие стимулы для поощрения возвращения Севера к диалогу. Ранее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обсудили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Северу. Перед вылетом в Токио Но Гю Док отметил «значительный прогресс» в консультациях между союзниками по поводу такой поддержки.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активизирует усилия по возобновлению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несмотря на его стремление продолжать ядерные и ракет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сле трёх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и Но Гю Док и Сон Ким встретились в дву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Накануне Но Гю Док и Такэхиро Фунакоси провели дву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В годовщину основания КНДР лидер страны посетил Кымсусанский дворец

9 сентября, в 73-ю годовщину основания КНДР,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мавзолей своего покойного деда и основателя страны Ким Ир Сена, а также покойного отца и бывше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Ира. По сообщению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его сопровождали супруга Ли Соль Чжу,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Чхве Рён Хэ и секретарь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по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м вопросам Чо Ён Вон.

77% южнокорейцев собираются остаться дома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не планируют посещать родные места или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стране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оящ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опасаясь инфекции.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1.001 взрослого жителя страны, проведённого с 7 по 9 сент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Gallup Korea. 77% респон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не планируют покидать свои дома в праздничные выходные. 19% респондентов планируют поездки более чем на сутки. Лишь 2% опрошенных планируют отправиться в поездку по стране.

Компания Google оштрафована на 207 млрд вон за антиконкурентную практику

14 сентября комиссия по справедливой торговле РК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штрафовать компанию Google на 207 млрд 400 млн вон (176 млн 800 тыс. долларов) за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доминирующим положением на рынке мобильных опер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и приложений.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Google препятствует рыноч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требуя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мартфонов заключать «антифрагментарные соглашения» (AFA) при подписании контрактов на лицензии для магазинов приложений и ранний доступ к операционным система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AFA,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устройств не разрешается устанавливать на свои продукты 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е версии опер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Android. Такая практика помогла Google закрепить доминирующее положение на рынке мобильных платформ. Помимо штрафа, комиссия по справедливой торговле обязала компании Google LLC, Google Asia Pacific и Google Korea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исправлению положения. Регулирующий орган предписал Google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актики принужде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Android подписывать AFA и вносить в них изменения, не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в о них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Финансовый регулятор отдельно расследует ещё три дела, связанных с антиконкурен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Google. Изучается, в частности, требовал ли Google покупать мобильные игровые приложения только в своём магазине Google Play. Ведётся такж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й деловой практики Google в отношении продажи цифровой реклам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Google решила взимать с разработчиков приложений 30-процентную комиссию с продаж на своей платформе. 31 августа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приняло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м бизнесе,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южнокорейцев от обязанности при покупке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Google и Apple использова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их платёжные системы.

(RKI)

Сеул предложил подключить Россию 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туризму

Объединить в еди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ездки в рамках межкорейского туризма с экскурсиями по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 с так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выступил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Ли Ин Ён в ходе своего доклада на 6-м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ЭФ), который прошё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Министр Л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министр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смогу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обмен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где особо перспекти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выглядит сфера туризма, в част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я поездок для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 КНДР. При этом, по мнению Ли Ин Ёна, эти туры не стоит ограничивать тольк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о стоит также включить в них и посещ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РФ, а также северо-восточных про-

винций Китая.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программы смогли бы стат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и поездкам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удет оценит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всего региона, включая Южную,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Россию и Китай.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нее, вплоть до 2008 г.,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реализовывалос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Южане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щать находящиеся в КНДР живописные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а также город Кэсон. Были планы по расширению географии поездок, но затем рост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 позволил реализовать задуманное.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именно с туризма может начаться реанимац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подключение к этому России и Китая позволит предлагат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е и насыщенны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нтента программы.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Samsung создаст 30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молодёжи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группа Samsung создаст 30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молодёжи за счёт расширения инициатив в области корпоративной соци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Создание по 10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год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оговорённостью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раны и руководством группы Samsung. О ней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вшегося 14 сентября в Академи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Samsung для молодёжи, которая организует бесплатные годовые курсы компьютерного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Бу Гём, министр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Ан Гён Док,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группы Samsung. Ли Чжэ Ён появился на публике впервые после условно-досрочно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из тюрьмы, где он отбывал наказание по обвинению в коррупции. Группа Samsung стала вторым партнёр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лодёжи после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го гиганта KT, соглашение с которым было заключено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KBS World

Пятикратная!

ОДИНЦОВО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12 сен — ИА РУСКОР, Ирина Ким.

Воспитанница СК «Грандмастер»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ина Хан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73 килограммов.

Полина стала пятикратной чемпионкой страны, она уверенно прошла своих соперниц из г.Москвы, Рязанской области, КЧР и р.Дагестан.

Для 21-летней воспитанницы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Ростова-на-Дону —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Грандмастер» (тренер Артур Хан) это продолжение победной серии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Полина сделала золотой дубль: выиграла и чемпионат, и Кубок страны.

В 2017 году Полина стала первой в истории ростовского тхэквондо золотой медалисткой чемпионата Европы. Она входит в десятку сильнейших тхэквондисток миров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йтинг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два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влекли около 1 тысяч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ют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привлечения кадров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 2020 года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трудоустроены 933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а, из них 420 – врачи. Благодаря прито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решается задача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ля жителей.

–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абсолютный приоритет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на островах были доступными. Для этого улучшаем материальную базу – строим поликлиники,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е пункты и амбулатории. Вторая 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 привлечение кадров. Мы привозим нуж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здаем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их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а также делаем так,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учились в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ах, а после работ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дет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начала года трудоустроились 15 медиков – 13 педиатров и 2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а. Для Валерии Филипенко новый этап жизни начался 1 сентября. Молодой врач окончила обучение в ординатуре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пере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 Раньше бывала здесь в гостях, город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Решила здесь жить и не разочаровалась. В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где работаю, хороший коллекти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В бытовом плане тоже комфортно – оплачивают проживание, думаю, и родителей перевезти на остров, – поделилась Валерия.

Благодаря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в городской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полностью укомплектованы службы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офтальмологов, лор-врачей, хирургов. Дефицит кадров удается устранить по профи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 в целом по региону.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мед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привлекли в акушерство-гинекологию, неврологию и стоматологию.

Условия для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дни из самых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по стране.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участники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имеют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единовременного пособия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до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ли компенсацию его аренды. При заключении договора во время обучения в ВУЗе студенты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 В этом году удалось улучшить кадровую ситуацию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апример, в Невельскую больницу пришли работать 8 врачей. В Долинск и Корсаков прибыли по 11 специалистов, усилен кадровый состав в Охе, Поронайске, Тымовском и других районных центрах. Эта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на системной основ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До конца года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еще 125 врачей. 70 из них уже едут на острова.

15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борются за звание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21»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дят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ей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Уже завершился первый этап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Теперь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ей предстоит определить тройку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обеду в каждой из пяти номинаций. Имена лучших из лучших выберу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голос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с 1 по 15 октября.

Конкурс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единил лидеров молодежных движений, многодетных родителей, активных пенсионер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Кандидатуры земляков, которыми стоит гордиться, предложили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недель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ли участников. Только в первые сутки было отдано около 3 тысяч голосов. На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минированы более 130 островитян.

Самая популярная номинация – «Юный гражданин» – собрала активных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которые еще н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совершеннолетие, но уж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жизни школы, города, района и всей области. Ребята покоряют спортивные и творческие вершины, занимаются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м, побеждают на олимпиаде школьников и чемпионатах «Ворлд Скиллз».

Второй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тала номинация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Она объединила островитян в возрасте 50+, кто продолжает блистать в творчестве, спорте,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по числу участников – номинация «Выдающийся родитель».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мамы и папы, в том числе многодетные и приемные, которые своим примером способствуют укреплению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Номинация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знакомит с земляками,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помощь в экс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мелость, отвагу и решительность.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 это специальная номи-

нация для жителей и уроженцев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став успешными и известными, прослав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во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Напомним, премия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учреждена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в масштабном конкурсе – 31 номинация. Лучших определяют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но и среди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4 ноября.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исвоил Охе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Город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Побе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присвоении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е Сахалина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Высокий статус получают города, жители которых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достижен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обеспечили бесперебо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енной и гражданской продукции, проявили трудовой героизм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 Рад поздравить с присвоением этого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жителей 12 городов России – крупн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центров и совсем небольших, но от этого не менее значимых в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и в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 их числе – город Оха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В 1942 году люди сделали, казалось бы, невозможное: через Татарский пролив проложили нефтепровод на материк. Сражающейся Родине Оха дала 3 миллиона тонн «черного золота».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ая семья, каждый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 все внесли свой вклад в Великую Победу, поэтому список городов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будем пополнять,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что обращение к Президенту о признании высокого статуса Охи поддержали более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 масштабной акции по сбору подписей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жители Охи внесли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Победу.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бое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охинцы работали на пределе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перевыполняли планы по добыче нефти на 100 и 200 процентов. Их доблестный труд – олицетворение подвига всего Сахалина. Каждого, кто добывал для Родины не только нефть, но и уголь, рыбу, лес, отправлял на фронт другие ценные ресурсы. Мы искренне рады, что трудовой героизм охинцев столь высоко отмечен государством. Это важн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амяти о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для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сегодня и будущего развития Ох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депутаты инициировали предложение – включить Оху в число городов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была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Мы запросили материалы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Нас поддержали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етеранские и молодеж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 большая заслуга всех островитян. Это дань памяти нашим дедам и прадедам, которые в тылу ковали Победу, – отметил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 Я выражаю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охинцам, всем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благодарила глава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 Всем, кто оставил свою подпись за Оху. Всем, кто поверил, что Оха достойна такого высокого почетного звания. Я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наш город – первый на Сахалине город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Для нас это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Краевед, почетный житель Охи Александр Геллер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звание давно заслужили несколько поколений жителей Охи, которые неустанно трудились 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после ее окончания.

– Когда вспоминают войну, говорят, что Оха – это 3 миллиона тонн добытой нефти. Да, это величайший подвиг. Но я хочу вспомнить и о том, что охинцы отправляли на фронт рыбу, продукты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дежду, деньги. На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е собирали охинцы, уже в начале войны было построено целое звено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которое получило название «Охинский нефтяник». На деньги охинцев была построена эскадрилья санавиации –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красные кресты». В Охе производили гранаты и 50-миллиметровые минометы, здесь готовились бойцы для армии. Оха была как единый фронтной лагерь. То, что вынесли наши земляки в годы войны, заслуживает огро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сегодня мы можем гордиться тем, что нашему городу присвоено такое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Оха – город героев! – сказал краевед.

Ветера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член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Семен Соболев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поставил свою подпись за признание Охи городом трудовой доблести.

– Я живу здесь 70 лет. Вспоминаю, какой была Оха – сплошные бараки и полуземлянки, ни одной машины, земляные дороги, на промыслах работала только гусеничная техника, паровое отопление, – поделился ветеран. – Тяжелейшие условия, 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жили и работали по-настоящему героические люди, потому что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в Охе в годы войны и послевоенное время – это как совершать ежедневный подвиг. Спасибо на-

шим героям! Спасибо за то, какая Оха сейчас: шумная, комфортная, залитая светом, отстроенная. Сделали ее такой поколения наших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наши родители. Низкий поклон им и слава, почет и уважение. Будем жить и помнить и трудиться так, чтобы Оха становилась только лучш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б этапах сахалинской программы газификации

Газификац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в 2025 году, при этом большая часть работ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будет выполнена в 2023 году.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Так,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газификация завершится в До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В 2022 году –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Макарове и селах Чапаево, Соловьёвка, Дачное, Озёрское, Первая, Вторая и Третья Пад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Газ придет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До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 Углезаводск, Стародубское, Сокол, Октябрьское и Советское, а также в южные районы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 2023 году газификацию завершат в райцентре 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Порона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Томари, а также селах Огоньки, Успенское, Мицулевка и Таранай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Выполнят 3-5 этапы газификации планировочного района Владимиров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начн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2024 году газовые сети проложат в Холмске, селах Мгачи, Чеховское, Арково и Михайловк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еле Ильинск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мирных и селе Победино.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ладимировка завершат 6 и 7 этапы газификации.

В 2025 году трубный газ придет в села Буюклы, Ельники и Рош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начнется на Северных Курилах.

– Это не просто прогнозы, а реальные жесткие планы, обеспеченные деньгами и зо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л, что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владеющие частными домами, имеют право на бесплатное подключение к газовым сетям. Льготные категории – ветераны, пенсионеры, инвалиды и семьи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 получают д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внутридом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Около 1500 обращений поступило на прямую ли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1165 в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оставил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еще 280 – задали по телефону. В прямом эфире за 2 часа губернатор успел ответить почти на полсотни вопросов, волнующих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обращений затронула такие темы, как ремонт дорог и дворов, установка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 субсидированные авиаперевозки,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ЖКХ, переселение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и жилищные программы.

В прямом эфир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зрешил опас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заявив, что реновация возможна только с согласия жителей 4, 7, 8 микрорайонв.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рассказал о механизмах сдерживания цен на жиль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х прозвучал вопрос о приобретении угл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жители частных домов столкнулись с проблемой отсутствия топлива в преддверии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ал поручение – к 13 сентября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углем.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 комплекс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а также об этапах программы 100-процентной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прямом эфире сахалинцы узнали и о планах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школ.

На большинство вопросов ответы будут даны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 до 17 сентября. В случае, если решение потребует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обратившегося так же проинформируют об этом.

Кроме того, по итогам прямой линии сформирован список из 17 поручений губернатора. К пример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установить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в селе Чир-Унвд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жителей. Корсаков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должна будет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участка дороги по улице Парковой, а Доли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 вопрос возобновления работы оптики.

Поручение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препарата для лечения сахарного диабета. С такой просьбой к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обратились мамы детей с этим заболева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должны будут оцифровать объекты,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культурную ценность, на портале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 всем поручениям губернатора установлены контрольные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참관기] 하바로프스크 '아리랑 민족간문화센터'를 찾아서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9월6-7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한국 측 발표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2차대 전 종전 후 진행됐던 '하바로프스크 전범재판'을 기념한 대규모 국제학술 포럼이었다.

포럼에는 푸틴 대통령이 기념사를 보내왔고,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만 약 10여명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세계각지에서 행사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등 큰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하바로프스크 고려인연합회 백규성 회장과 그의 활동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행사 참석 일정들이 바뻐서, 지역 고려인사회를 대표하는 백규성 회장을 잠시라도 찾아보고 싶었다.

백규성 회장은 사할린 출신으로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잘 구사하는 분이다.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동안의 봉사활동과 한러 간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받아 여러 차례 한국과 러시아에서 표창을 받았다.

백 회장은 현재 하바로프스크에 '아리랑 민족 간 문화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도착하자 백 회장은 건물 앞에까지 나와서 맞이하며 아리랑 센터의 곳곳을 안내해

주었다. 센터는 3층 건물로 규모가 상당히 컸다. 1층은 대강당과 전시실로 2층은 강의실과 각종 문화교실로 3층은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방문했을 때가 오전 시간이었는 데도, 강의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1층 전시실엔 러시아 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에 헌신한 여러 애국지사들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들이 벽면들에 길게 전시되어 있었다.

백규성 회장 사무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러시아어, 하바로프스크어, 그리고 한반도기가 함께 어우러져 놓여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지역 고려인 동포 사회단체의 사무실엔 통상적으로 러시아어, 한국 태극기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고, 혹은 북한 인공기까지 함께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

왜 한국 태극기는 보이지 않고 한반도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지 그 이유를 묻자, 백규성 회장은 "고려인들이 한반도를 떠나올 때는 한반도에 한 개의 국가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남북이 갈라져 두 개 국가가 존재한다. 자신은 남북이 다시 하나 되는 그날을 기원한다. 그리고 조상이 한반도를 떠나올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싶다. 그래서 책상 위엔 한반도기를 놓았다"고 답변했다. 백규성 회장의 이러한 답변에서 회장의 특별한 조국사랑과 평화통일



을 염원하는 마음을 함께 읽혔다.

백규성 회장은 그동안 하바로프스크 고려인연합회가 진행한 각종 문화행사와 한국어교육, 각종 문화교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고려인연합회에서 발행한 책자들 그리고 현재 발행 중인 저널과 신문 등을 펼쳐 보여 주며 소개했다. 행사의 규모들이 크고 운영 중인 한국어 교실과 문화교실의 다양한 것이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다. 아리랑 문화센터의 활동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문화센터 활동들은 크고 작은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바로프스크에 한국기업이나 업체 등에서 센터 활동에 기여를 많이 하는가?", "한국정부나 기관에서 회장님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극히 자연스런 질문이었다. 하지만 백규성 회장은

이 질문에 정색하며 "모든 활동 비용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아리랑 민족간문화센터 역시 본인이 사재를 내놓아 건물을 지을 땅도 사고 센터 건설 비용도 마련했다"고 강조해서 적지 않게 놀랐다.

문화센터가 왜 한민족 혹은 고려인 문화센터가 아니고 민족간문화센터일까? 이 질문을 던지자 백규성 회장은 "아리랑문화센터가 단순히 한민족만을 위한 센터가 아니다. 고려인뿐만이 아니라 하바로프스크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센터를 이용해 센터가 민족들 간에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며 방문 다음 날이 8일에 센터 강당에서 큰 다민족행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백규성 회장은 자신은 지금은 생업을 접고 오직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한러 간에, 남북러 간



백규성 하바로프스크 고려인 연합회장

에 교류 협력을 위한 사회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은 "하바로프스크의 바보"라고 부르다며 큰 소리를 내며 웃음을 웃었다.

나는 공식 일정에 쫓겨 부득이하게 백규성 회장과 만남을 짧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에 담긴 선물을 주고받으며 아쉬움 마음을 달랬다. 아리랑 민족간문화센터는 이후에도 고려인사회의 주역할을 했으면 한다. 하바로프스크 여러 민족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

(출처: 월드코리안뉴스)

주물 노동자 출신 김동식 작가, 러시아 최대 출판사서 소설집 발간

주물공장 노동자 출신 청년작가 김동식(36)의 단편소설집이 러시아어로 출간된다. 그의 책을 출간하는 AST출판사는 러시아 최대 출판사 중의 하나로 세계 16위권 출판사다.

김 작가는 상상력 가득한 단편소설로 청년층에게 '스마트폰 보다 더 재미있는 작가'로 통한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졸 검정고시 학력이 전부인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 쓰는 법'을 검색하며 맞춤법을 익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모아 출간한 3권의 소설집 <회색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13일의 김남우>가 화제를 모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후 10권의 소설집에 200여편의 단편이 실렸다.

러시아와의 인연은 모스크바 최고 학부인 모스크바 국립대가 맺어줬다. 모스크바 국립대 한국어 수강 학생들이 그의 단편 소설을 읽기 시작하자 학교 측에서는 그의 작품을 교재로 발간했다. 짧은 초단편 형식의 글이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후 AST 출판사의 아시아담당자는 김 작가의 책을 러시아어로 출판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온라인 현대문학을 러시아에 소개하고자 번역 출판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모스크바사무소가 지원했다.

김 작가는 책 발간을 계기로 9월 6일부터 10일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는 모스크바 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아울러 AST 출판사 대표자 면담, 시내 대형서점 출판기념 행사, 인터넷 서점 동영상 촬영, Vkontakte 라이브방송 출연과 외국문학도서관 강연 등을 통해 러시아 독자와 교류하였다. (재외동포신문)

ВСТРЕЧА С АВТОРОМ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ТОНСИКОМ

В ФОРМАТ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9 СЕНТЯБРЯ В 18:00

БИБЛИОТЕКА №5 ИМЕНИ М.А. ВОЛОШИНА

АДРЕС: НОВОДЕВИЧИЙ ПРОЕЗД, Д. 1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주물공장 노동자 출신 김동식(36) 작가의 단편소설집이 러시아어로 출간된다. 소설집 출간 광고 포스터 (사진 KF)

"사할린의 기억" 충북대생들, 사할린 한인 애환 담은 책 냈다

추석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사할린 한인들의 애환을 담은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13일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러시아어언문학과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사할린, 더 메모리'를 출판했다. 참여 학생은 4학년 정대훈, 2학년 김수지·배지혜, 1학년 강예빈·신민호·윤태수·이지현 총 7명이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사는 7명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의 인터뷰와 사진을 책으로 엮었다. 책에는 질병과 노령화 등으로 점차 거주 가구가 줄고 있는 충북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들의 삶을 담았다.

특히 올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들의 삶을 되짚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점차 희미해지는 사할린 동포의 애환을 그들의 육성과 소장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꾸몄다.

사할린 한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다. 해방을 맞고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 억류됐다. 사할린 한인 일부는 2008년부터 오송으로 이주를 시작해 현재 한인 2세대 53명이 살고 있다.

책 만들기를 기획한 정대훈, 김수지 학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

"질 년, 이질 년, 그리고 그한림의 시간이 더 흘러도 우리의 기억 속에 그들이 언제나 우리의 함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할린, 더 메모리

The Memory

더 메모리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사할린 한인들의 애환을 담은 '사할린 더 메모리'를 출판했다. 충북대 제공

할린 학생들에 대한 장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4월 봉사 동아리를 조직했다. 그러면서 1:1로 연계해 안부를 묻고 일상생활의 어려운 부분을 위로하는 등 마음을 다했다.

정대훈 학생은 "처음 기획할 때에는 더 많은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했다"며 "코로나19로 봉사활동과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김수지 학생은 "이 책을 통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복지 또한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대 러시아어언문학과와 학생들은 지난 2018년 3·1 운동 100주년을 즈음해 '그 섬, 잊힌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 펴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됐다가 해방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할린에 정착하게 된 비극적인 현대사를 알리기 위해서다.

(세계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Организато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Воль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России при участ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юза экономист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й субъектов РФ, Финансов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 и других ведущих вуз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ститутов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Цел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грамот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целом и его отдельных возрастны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групп, развити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олодежи, оценк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грамот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азличны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оль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России проводит общероссийск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акцию «Всеросс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с 2017 года. В 2020 году акция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ась только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во всех 85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а также в шести странах; сво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грамотность проверили 183 215 человек.

Результат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участнику сразу после его окончания.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с указан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уровня знаний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пользователя.

Участник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набравшие 90 баллов и выше, являются победителями. Диплом победителя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Победител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пригласят к участию в финале фестива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ауки, а также к участию в других проекта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Во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России.

сахалин 주민들 남녀노소 축제에서 암벽 타기 강습

сахалин에서 암벽타기 축제가 сахалин주 관광부의 지원으로 '부메랑' 클럽이 유·청소년 관광센터와 산악인 및 암벽 등반가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제 이 행사는 전통이 되어 많은 сахалин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번덕스런 날씨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은 단호하게 진행했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후 6세부터 60세까지 연령의 참가자들은 준비된 코스로 나가 휘몰아치는 긴장과 흥분을 억제해가며 스스로를 이겨냈다.

초보자들의 난이도는 등반만 아니라 하강으로 이뤄져 있었는데 보호 밧줄만 믿고 하강하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았다. 반면 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강해 쉬고 있었다.

등반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난이도를 갖춘 9개 코스가 준비된 가운데 대부분의 코스는 정말 단순했지만 몇몇 코스는 경험 있는 등반가들에게도 쉽지 않게 다가왔다.

아동들을 위해 추가된 도전은 밧줄 이동이었다.

산악 등반 희망자는 누구나 1년간 등반 강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메랑' 클럽이 진행하는 아동들을 위한 강습은 전화 300-506번으로 문의할 수 있고, 18세 이상의 청년과 성인들은 сахалин 산악인 및 암벽 등반가 단체의 전화8(924)188-66-30 (알렉산드르)로 문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부메랑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штурмовали скалы на фестивале

Ск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л клуб "Бумеранг" совместно с центром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и сообществом альпинистов и скалолаз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уже стало традиционным, и многие сахалинцы ждут его с нетерпением. Поэтому, невзирая на переменчивую погоду,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настроены решительно.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инструктажа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е желающие от 6 до 60 лет выходили на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трассы и, стараясь совладать с бушующим адреналином, преодолевали себя.

Для новичков сложность составлял не столько подъем, сколько спуск. Просто довериться страхующему, веревке и отпустить скалу — это дается не сразу. Зато те, кто не первый раз посещает фестиваль, на спуске отдыхали. Для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9 трасс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сложности. Большинство трасс были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ые, но некоторые давались нелегко и опытным скалолаза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детей стала веревочная переправа.

В течение года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одолжить заниматься скалолазанием. Занятия для детей проводит клуб "Бумеранг,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300506. Молодежь старше 18 лет и взрослые найдут поддержку в сообществе альпинистов и скалолазов Сахали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924)188-66-30 (Александр), сообщает "Бумеранг".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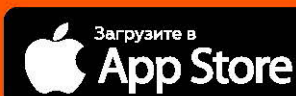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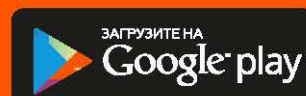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도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